애플뮤직 "BTS, 팝의 혁명 일으켰다"

▲ 애플뮤직에 출연한 BTS와 진행자 제인 로어. 사진=유튜브(Apple Music) 캡처

애플뮤직이 "방탄소년단(BTS)이 팝의 혁명을 일으켰다." 고 평가했다.

8일 미국 음악매체 빌보드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날 유명 음악방송 DJ 제인 로어가 진행하는 애플뮤직 '에센셜' 인터뷰 코너에 출연했다.

로어는 BTS에게 "음악적 성공이 가져온 명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물었다. 이에 리더 RM은 "우리는 대형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열고, 빌보드 핫 100에서 1위를 한 가장 운이 좋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 라며 "제 곁에는 서로를 이해하는 6명이 있다. 저는 이 6명의 동료가 있다는 것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날 로어는 "내 아들은 차에 함께 있을 때 나에게 방탄소년단의 한국어로 노래를 들려줬다. 내 아들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 면서 "나는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이어 그는 "BTS는 팝의 혁명을 일으켰고, 거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면서 "여러분은 세계 무대에 올라섰고, 세계는 (BTS 음악을) 듣고 있다." 고 BTS의 음악적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 '레드슈즈' 아카데미 도전

한국 토종 애니메이션 '레드슈즈' (감독 홍성호)가 아카데미에 도전한다.

제작사 싸이더스 애니메이션은 9일 '레드슈즈' 가 제93회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예비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고 밝혔다.

▲ 레드 슈즈 포스터. 사진= 싸이더스 애니메이션Music 캡처

아카데미 장편 애니메이션 부문은 입후보의 자격과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니메이션 강국인 미국 시장에서 미국 이외 나라 작품이 주목을 받기가 어려운 만큼 '레드슈즈' 가 한국 상업용 장편 애니메이션 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에 입후보한 것은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레드슈즈' 는 3D 애니메이션 작품으로 2019년 한국에서 개봉해 82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고,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애니메이션 부분 최고상인 대통령상을 받았다.

해외에서도 유럽, 호주를 비롯해 선 판매 된 세계 123개국에 개봉했고, 스페인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또 지난해 9월에는 할리우드 6대 메이저 배급사인 '라이온스 게이트' 를 통해 미국 등 북미에도 진출했다.

모든 과정을 한국인이 만든 장편 애니메이션이 미국 배급사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것은 '레드슈즈' 가 최초다.

블랙핑크, K팝그룹 최초 두 번째 12억뷰 MV

▲ 블랙핑크 '킬 디스 러브' MV 포스터. 사진=YG엔터테인먼트

그룹 블랙핑크의 히트곡 '킬 디스 러브' 뮤직비디오가 12억 뷰를 돌파했다.

9일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이 뮤직비디오는 이날 0시 40분께 유튜브에서 조회수 12억 건을 넘겼다. '뚜두뚜두' (14억 뷰)를 이은 블랙핑크의 두 번째 12억 뷰 뮤직비디오다. K팝 그룹 가운데 12억 뷰 이상 뮤직비디오 두 편을 보유한 것은 블랙핑크가 유일하다.

소속사는 " '킬 디스 러브' 는 '뚜두뚜두' 보다 약 67일 빠르게 12억 뷰를 달성했다." 면서 " '뚜두뚜두' 의 기록을 바짝 뒤쫓을 것" 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발매된 '킬 디스 러브' 는 블랙핑크의 걸크러시 매력이 돋보이는 힙합 장르 곡으로, 장총을 쏘는 듯한 퍼포먼스가 특징인 노래다. 발매 첫 주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 100' 에서 당시 K팝 걸그룹 최고 순위인 41위에 오른 바 있다. 뮤직비디오 역시 유튜브 사상 최단 시간인 약 38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

숫자퍼즐 정답

8	1	4	9	6	7	3	2	5
3	5	9	1	2	8	4	6	7
2	6	7	5	3	4	9	1	8
4	8	1	7	9	5	6	3	2
5	2	6	3	8	1	7	9	4
7	9	3	2	4	6	8	5	1
1	3	5	8	7	9	2	4	6
9	4	8	6	5	2	1	7	3
6	7	2	4	1	3	5	8	9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 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